



## “연중 제 33주일”

(평신도 주일)

<http://www.sjkoreancatholic.org/>

[OBJ] [ 루카 20, 27-38 ]

2010.11.14.

## 금주의 강론

[ 임숙희(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성서영성 신학박사 과정)



먼저 예수님은 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에게 속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들로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

다. 이것은 실제로 루카 공동체가 겪은 체험일 것입니다.(사도 5, 37; 21, 38) 그러나 공동체를 더욱 위협하는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제2독서에 바오로가 테살로니카인들에게 하는 권고는 이런 교회 현실을 배경에 둔 실제적인 사목적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외적인 표징이나 사건에 매달리거나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일상을 충실히 해나가며 주님과 결정적인 만남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받았던 당신과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21, 17)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삶이 하느님, 아با 아버지의 보호 안에 있다는 비밀도 알려주십니다. (18 - 19절) 이 말씀은 루카의 문맥에서 볼 때, 순교 상황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참새 한 마리까지 기억하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벗인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어 두셨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7) 제자들은 또한 하느님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인내라는 무기를 주시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내’ 는 혼자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내면적인 자세라기보다는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종말에 대한 희망에 뿌리를 둡니다. 인내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특성이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인내는 제자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시련 중에서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8, 15) 제1독서에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가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는 사람들” 은 주님의 날에 “정의의 태양처럼 떠오를 것” 이라고 예언할 때 (말라 3, 20) 아마도 그는 현재의 박해와 미움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보호에 신뢰를 두고 일상을 인내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성탄 전야제 음악회 연습**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에 연습이 있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기도 요청** 몇년 전 성가대에서 함께 봉사하였었고, 지금은 아침 모닝 글로리 성가 단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정은 로사** 자매님이 화요일 저녁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겨우 2살난 쌍둥이와 **강승일 아니체토 형제님** 가정에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 입단** **김경식 데레사 자매님**이 소프라노파트로 입단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길...
- **최 예로니모 단장님** 11/12부터 1주일동안 출장을 떠납니다. 안전한 여행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 **조 경자 율리아나 자매님** 1개월 여정으로, **박영아 소피아 자매님**은 11월 말에 2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행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최다니엘 형제님** **레스토랑의 확장 문제**를 Municipal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만 토마스 형제**는 많은 가족들의 끊임없는 기도덕택에 8번째 Chemo를 마치고 많은 전위 세포가 줄어들어 3개월간 치료및 투약을 중단하고 3개월후 다시 최종 검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고마워 하며 감사의 말씀을 지면을 통해 우선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요한8,51)”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없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 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 때 어떻게 항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 넘겨서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1분 명상

♡ " 삶은 아픔보다...."♡ (피운 글)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높고 맑듯이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고 생각이 맑아져 한층 성숙해진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겠는가?'라고 물었다

하나의 고통이 열 가지 감사를 알게 하고 하나의 감사가 열 가지 고통을 이기게 한다

아버지께서는 고기가 잘 안 잡히면 바다를 보면서 '바람이 한번 불어야 할 텐데...' 하고 말씀하셨다

태풍이 불어와 바다 속까지 뒤집히면 산소가 풍부해지고 플랑크톤이 많아진다 그러면 고기들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어부들은 고기들을 많이 잡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어려움속에 있거나 앞으로 고통이 찾아 오면 그것을 통해 얻게 될 새로운 성숙과 감사를 떠 올려야 된다

삶은 아픔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도 태풍이 불어 올 때가 있다 그때는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



토막 교리

“미사 도구”



제구(祭具. vasa sacra. Sacred Vessels)

미사와 기타 전례에 사용되는 용기들을 통틀어 말한다. 성작과 성반, 성함, 성광처럼 성체와 성혈이 직접 닿게 되는 것도 있으며 그 밖에도 성체포, 성작수건, 성작개, 주수병, 향로 등이 있다.



성작(聖爵. calix. Chalice)

가장 귀중한 제구의 하나로 포도주를 담은 잔이다. 이 포도주는 미사 중에 성변화(聖變化)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혈로 변화된다. 최후 만찬 때에 예수는 잔을 사용하였고, 그 잔에 담긴 포도주를 당신 피로 변화시키셨다. 성작은 수세기 동안 귀중한 재료로 만들었는데 고상하고 단단한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성작 내부는 도금해야 한다. 사제는 누구나 다 성작을 축성할 수 있다